

목포해수청, 추석 연휴 항만운영 특별대책 시행

- 연휴 기간 원활한 항만서비스 제공과 항만 안전·보안사고 예방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운영자, 이하 '목포해수청')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4일간 목포항의 원활한 항만서비스 제공과 안전·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목포항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연휴 기간 중에도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정상 운영하여 항만이용서비스를 평시와 다름없이 제공하며, 예선업체 및 도선사는 비상 근무체제를 구축·운영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부두별 노무공급담당자 비상연락망을 활용하여 긴급 수출·입 화물이 차질 없이 하역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휴에 앞서 호우·강풍 등 기상 악화 대비 체계, 안전장구 착용 여부, 항만근로자 휴게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는 항만안전 특별점검(9. 14.~23.)도 실시한다. 연휴 중에는 테러·해상 밀입국 등 보안사고에 대비해 항만 경비·보안 인력이 정상 근무하며, 당직실을 특별상황실로 운영하고 유관기관 및 업·단체와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목포해수청 항만물류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목포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적인 항만서비스를 지원하고, 현장 안전·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책임자	과 장	이영길 (061-280-1660)
		담당자	주무관	문윤희 (061-280-1667)
		담당자	주무관	김지안 (061-280-1707)